

이 란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8
IV. 국제신인도	11
V. 종합의견	14

I. 일반개황

면적	1,648천 km ²	G D P	4,355억 달러 (2013)
인구	77.3백만 명 (2013)	1 인 당 GDP	5,637 달러 (2013)
정치체제	이슬람 공화정	통화단위	Irani Rial (IR)
대외정책	친아랍	환율(달러당)	18,551.80 (2013)

- 서남아시아 걸프 연안에 위치한 이란은 한반도 면적의 7.4배에 달하는 국토와 약 7,726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는 이라크, 터키,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과 접경하고 있음.
- 2012년 말 기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및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자 중동의 경제대국으로서 석유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음.
-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며,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인해 외국인 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에 어려움이 있음.
- 2013년 8월 대선에서 온건주의자로 알려진 Hassan Rouhani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을 추구, 동년 11월 핵개발 관련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되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EU의 운송보험 금지로 원유수출 타격, 2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

-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약 40%, 총 수출의 약 80%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경제성장은 원유 및 천연가스의 국제가격 등락과 생산량 증감에 크게 좌우되고 있음.
- 2012년 7월부터 EU가 이란의 핵개발 강행에 대한 제재로 역내 모든 보험회사의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을 금지함에 따라 원유 수출이 타격을 입어, 2012년 이란 경제는 5.6%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음. 2013년에도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원유의 생산량 및 수출량이 감소하여, 이란 경제는 2013년에도 3.0%의 마이너스 성장을 시현한 것으로 추정됨.
- 이란의 원유 수출은 유조선에 의하며, 모든 유조선은 운송보험을 들어야만 국제 운항이 가능함. 유럽의 선주상호보험(P&I) 클럽은 전 세계 유조선 운송보험의 95%를 제공하고 있어, EU의 운송보험 제공 조치는 이란의 원유 수출을 거의 중단시키는 상황을 초래하였음.

□ 6개월간의 시한부 경제제재 완화로 2014년 플러스(+) 경제성장 기대

- 2013년 11월 이란과 5+1(UN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 + 독일)간의 핵협상 조건부 타결이 이루어지고 금년 1월 20일부로 6개월간의 시한부 경제제재 완화가 단행됨에 따라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가 등이 기대되어, 이란 경제는 2014년에 최소 1.5%의 플러스(+) 성장이 예상됨.
- International Energy Agency(IEA)는 제네바 핵협상 타결 이후 중국이 이란산 원유의 수입물량을 늘리고 대만으로의 이란산 원유 수송이 재개됨에 따라 이란의 원유 및 gas condensate 일일 평균 수출량이 2013년 11월 89천 배럴에서 12월 850천 배럴로 급증하였으며, 2013년 일일 유류 생산량도 10월 13천 배럴로까지 추락하였다가 12월 2,710천 배럴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음.

※ gas condensate: 천연가스 채굴시 지표에서 응축 분리된 천연의 경질(硬質) 액상 탄화수소로, 특경질 원유(特硬質原油)로도 불림.

< 표 1 >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g	2014 ^f
경제성장률	5.9	2.7	-5.6	-3.0	1.5
재정수지 / GDP	-1.2	-0.9	-0.7	-2.4	-1.7
소비자물가상승률	10.2	20.6	19.9	39.3	26.0

자료: IMF, EIU.

□ 재정수지는 국영 석유기업의 수입 감소, 확대 재정정책 등으로 적자 기조 지속 전망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에 따른 원유 수출 감소 본격화에 따른 국영 석유기업의 석유수출 수입(收入) 감소 및 국영기업 매각 부진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적자는 2013년 GDP 대비 2.4%로 전년(GDP 대비 0.7%)보다 악화 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핵협상 조건부 타결에 따른 6개월간의 경제제재 완화 조치로 원유 수출의 증가가 기대됨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1.7%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제유가 하락 추세가 석유수출 수입 증가폭을 제한하고 공공 부문의 임금 인상 등 확대 재정정책의 요소도 작용하여 재정수지 적자 기조 자체는 향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다.

□ 자국화폐 약세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간 두 자릿수 지속

- 정부의 확대 재정정책, 이자율 인하 및 리알화 약세 용인 등 완화된 금융 정책 시행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지속 중임.
- 이란 중앙은행이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을 변경하였음에도 2012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경제제재 강화와 리알화 가치의 계속된 하락으로 인해 19.9%로 전년과 거의 같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이러한 추세는 2013년에 더욱 가속화 되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9.3%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경제제재의 한시적 완화에도 불구하고 리얄화 약세로 인한 수입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0%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새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한 유동성 감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란 중앙은행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경제제재가 전면적으로 철폐되지 않는 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는 한계가 있음.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과도한 석유 의존적 경제구조 유지, 산업다각화 노력의 성과는 미미

- 석유산업이 재정수입의 약 40%, 총 수출의 약 80%를 차지하는 등 원유의 생산 및 수출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아 국제유가의 변동이 국가경제 전반을 좌우하고 있음.
- 정부는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산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을 추진해 왔으나,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으로 원유생산 침체, 반면 정유능력은 증대

- 일일 원유생산량은 2010년 408.0만 배럴에서 2011년 405.4만 배럴, 2012년 336.7만 배럴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미숙한 프로젝트 관리 체계, 프로젝트 채원 및 인적자원의 부족,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등이 원유생산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2013년판 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에 의하면, 2012년 기준 세계 원유 생산량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 지역 7개 산유국(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가운데 2009~12년 기간 중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한 국가는 이란이 유일함.

- 원유 매장량이 매우 풍부함에도 과거 정유시설 부족으로 국내 수요의 충족을 위해 휘발유를 대량 수입하였음. 그러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강화로 휘발유 수입에 지장을 받게 되자, 이란 정부는 국영기업을 통한 정유설비 확장을 통해 일일 정유능력을 2007년 177.2만 배럴에서 2012년 189.2만 배럴로 늘리는 등 휘발유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이란의 2012년 평균 일일 유류 소비량은 197.1만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중동 지역 제2위의 유류 소비국임.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과도한 규제와 국제사회의 제재로 부진

- 이란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이란의 경제규모, 천연자원 등 성장잠재력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이란의 2013년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 추정치는 41억 달러(GDP의 1.0%)로, 걸프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인 사우디아라비아(174억 달러, GDP의 2.4%)와 UAE(100억 달러, GDP의 2.5%)에 비해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음.
-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의 부진은 외국기업의 경제적 지배를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에도 기인하나, 핵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파악됨.

나. 성장 잠재력

□ 원유,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자원부국

- 이란은 2012년 말 기준 세계 4위에 해당하는 1,570억 배럴의 원유 확인 매장량(전 세계 매장량의 9.4%) 및 세계 1위에 해당하는 33.6조 입방미터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전 세계의 18.0%)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임.
- 또한 최근 구리, 철광석, 석탄, 우라늄 등 광물자원의 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새로운 성장잠재력으로 주목받고 있음.

□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

- 아프리카 중서부 기니만 일대와 더불어 새로이 에너지 개발의 요충지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카스피해 연안에 인접하여, 중앙아시아 진출의 전략적 요충지로도 주목받고 있음.

다. 정책성과

□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산업다각화 및 민영화 정책 추진은 지지부진

- 중동 지역의 여타 산유국들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오일머니를 활용한 석유 화학 및 기타 제조업 육성 등 산업기반의 다각화를 추진하여 왔으나, 핵 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매년 국영기업의 20%를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 제5차(2010-2015) 경제사회개발계획의 효과는 아직 불투명

- 이란 정부는 2010년 1월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2010-15년)을 발표하였음. 동 계획은 연 평균 8%의 경제성장률, 실업률 7%, 재정 및 금융 개혁, 외국인 투자 및 무역 확대, 재정수입의 원유에 대한 의존도 감소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및 그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부진 등으로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태임.

3. 대외거래

□ 2012년 7월 이후 원유수출 급감으로 상품수지 및 경상수지는 2013년 적자 전환, 2014년에는 경제제재 완화로 다소 개선 기대

- 2012년에는 EU 제재로 인한 석유수출 감소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53.8% 감소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GDP 대비 4.7%를 기록하는 데 그쳤으며, 2013년에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으로 원유수출 감소가 계속되면서 상품수지가 적자 전환됨에 따라 경상수지는 GDP 대비 1.1%의 적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핵협상 조건부 타결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원유수출 증가가 기대되나, 국제유가 하락세로 인해 상품수지가 소폭 흑자 전환에 그쳐 경상수지 적자 규모가 GDP 대비 0.9%로 약간 개선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측됨.
- 석유 부문을 중심으로 서비스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도 경상수지 적자 축소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표 3 >

주요 수지 추이

단위: 백만 달러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상 품 수 지	37,330	67,069	30,975	-471	56
서 비 스 수 지	-10,040	-8,432	-6,293	-5,539	-5,337
소 득 수 지	79	323	1,153	825	1270
경 상 이 전 수 지	185	423	436	449	462
경 상 수 지	27,554	59,383	26,271	-4,736	-3,549

자료: IMF, EIU.

□ 기존의 원유수출 수입(收入)을 바탕으로 외채상환능력은 양호한 수준

- 2012년 7월 EU의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운송보험 금지로 원유수출이 감소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은 2013년 말 기준 전년 대비 8.4% 감소한 656.9억 달러로 추정되나, 이는 월평균 수입액의 10.7개월분으로 (IMF의 권고수준은 최소 3개월분) 비교적 양호한 수준임.
- 2013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 규모는 GDP의 3.7% 및 총수출액의 23.3%로 추정되며, 단기외채잔액은 외환보유액의 10.4%로 추정됨. 아울러 D.S.R도 3.0% 수준으로 추정되어 단기간의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핵개발 의혹과 관련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계속되어 대외지급능력이 영향을 받아 왔으나, 핵협상 합의 이행에 따른 6개월간의 제재 완화를 통해 42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에 대한 동결이 풀리면서 외채상환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 표 3 >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o	2014 ^f
경 상 수 지	27,554	59,383	26,271	-4,736	-3,549
경 상 수 지 / G D P	6.5	10.3	4.7	-1.1	0.9
상 품 수 지	37,330	67,069	30,975	-471	56
수 출	112,788	144,874	98,033	61,222	62,490
수 입	75,458	77,805	67,058	61,693	62,434
외 환 보 유 액	72,695	81,701	71,692	65,692	63,392
총 외 채 잔 액	22,841	17,340	16,882	15,998	14,716
총 외 채 잔 액 / G D P	5.4	3.0	3.0	3.7	3.7
D S R	3.4	2.8	2.0	3.0	n/a

자료: IMF, EIU, OECD.

Ⅲ. 정치 · 사회동향

1. 정치상황

□ Rouhani 대통령 당선 이후 서방과의 타협으로 정국 안정 기대

- 대내외적으로 강경 보수 정책을 추진한 Mahmoud Ahmadinejad 前대통령은 2009년 6월 대선에서 연임에 성공하였으나, 선거 후 부정선거 의혹에 따른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고 강경 보수정책의 고수에 따른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정국 혼란이 야기되었음.
- 2013년 8월 대선에서 온건주의자로 알려진 Hassan Rouhani 후보가 당선 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을 추구, 동년 11월 핵개발 관련 협상이 타결 됨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가 한시적으로 완화되었음.
- 경제제재의 완화는 이란 경제의 호전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Rouhani 대통령의 대 서방 유화정책에도 힘을 실어주어 정국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내부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보수파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음.

2. 사회안정 및 소요/사태

□ 높은 실업률, 억압적 사회 분위기로 인한 자살률 증가로 사회불안 가중

- 실질실업률이 30%를 상회하고, 도덕 경찰(morality police)이 이슬람 율법을 사회 전반에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2009년 대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대규모 시위가 정부에 의해 강압적으로 진압됨에 따라 절망감을 느끼는 젊은이들의 수가 늘어나면서 자살률이 최근 수년간 상승하는 등 사회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 2012년 이란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의 수는 남성의 경우 41.8명, 여성의 경우 64.5명으로 집계되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이란 국민의 일상생활 전반을 좌우하는 최고 종교지도자인 Ayatollah Ali Khamenei는 각종 종교직령을 통해 Twitter, Facebook 등의 소셜 네트워크(SNS) 사용을 통제하는 등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 표명을 억압하는 정책을 고수하고 있음.
- 이에 2012년 10월 리알화 폭락으로 인한 물가 폭등으로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고, 대선을 앞둔 2013년 6월에는 Khamenei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적 갈등이 폭발할 위험이 있음.

3. 국제관계

□ 새 정부 출범 후 서방과의 타협 추진, 2013년 11월 핵개발 동결 협상 조건부 타결

- 2013년 8월 대통령 선거에서 온건파로 알려진 Hassan Rouhani 후보가 당선되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을 추진, 그 동안 교착 상태를 지속하던 서방 국가들과의 핵개발 관련 협상이 가속화되었음.
- 이란과 UN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및 독일(P5+1)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2013년 11월 24일(현지시각) 이란에 대한 UN 안보리와 서방 국가들의 제재를 완화하는 대신 다음과 같이 이란의 핵개발 프로그램을 규제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사찰을 전제로 평화적 목적에 이용할 수 있도록 5% 이하의 농축 우라늄만 생산함.
- 이란은 국제사회의 이란 핵무기 개발 의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보관 중인 모든 고농축 우라늄을 5% 이하로 희석시키거나 산화물로 전환하며,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음.
(단, 이란이 현재 가동 중인 2개의 농축 시설은 유지 가능함.)
- 이란은 2014년 말 가동을 개시할 예정이던 Arak 중수로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음.
※ 동 발전소는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로, 서방 국가들은 동 중수로의 건설 중단을 요구해왔음.
- 이란은 IAEA가 Parchin 군사기지, Natanz 우라늄 농축시설, Fordo 지하 우라늄 농축시설에 대한 사찰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동 합의에 따른 경제제재 완화로 이란은 그동안 동결되었던 42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주로 석유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음.
- 아울러 석유화학제품과 차량 관련 품목 등 그간 수출이 막혔던 19억 달러 규모의 상품 수출 및 귀금속의 국제거래도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6개월간 최대 70억 달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전망됨.

□ 2014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 대 이란 제재조치 완화 시행

- 이란 핵협상에서 합의된 공동행동 계획이 1월 20일(현지시각) 발효되면서 이란 정부가 순도 20%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 및 이미 생산한 20% 고농축 우라늄 196kg을 연료용으로 산화하는 중화 작업에 착수하였음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이 확인함에 따라, 미국 정부도 대 이란 제재완화 방안의 시행을 발표하였음.
- 이번 제재완화 조치 적용시한은 오는 7월 20일까지며 앞으로 6개월간 이란의 공동행동 계획 이행 상황과 이란-주요 6개국 '포괄적 합의' 여부에 따라 완전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미국 정부는 밝혔음.

- 이에 우리나라는 2013년 7월 1일부터 미국 정부의 제재에 의해 금지되어 온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 및 이란산 석유화학제품 수입을 7월 20일 까지 6개월간 재개할 수 있게 되었음. 아울러 이란산 원유 수입도 추가 감축 없이 현행 연간 2,400만 배럴 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음.
-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이란산 석유 금수조치,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 금지조치, 이란과의 귀금속과 석유화학제품 교역 중단조치 등 이란에 대한 제재를 6개월간 잠정 해제하였음. 아울러 EU는 1단계 조치의 시행기간 중 이란에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음.
-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EU의 운송보험 제공 재개로 이란산 원유의 수출은 향후 6개월간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는 동시에 국제유가 하락세의 가속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역내 대립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시리아 내전을 계기로 갈등 고조

- 이란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시아파 이슬람교도가 국민의 절대 다수 (인구의 약 94%)를 차지하는 국가로, 수니파의 맹주이자 미국과 동맹관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음.
- 특히 시리아 내전과 관련하여 이란은 시아파 중심인 시리아 정부군을 지원하는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니파 위주의 반군을 지원하여 양국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음.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외채상환태도는 국제사회의 금융제재로 인해 전년 대비 악화

-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2013년 9월 말 중장기 외채잔액 규모는 51.7억 달러로 1년 전인 2012년 9월 말보다 24.7% 감소하였으나, 연체 비율은 2012년 9월 말 11.2%에서 2013년 9월 말 26.8%로 상승하여 외채상환태도가 악화된 것으로 보임.

- 주요 협정 : 문화협정(1974),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무역협정(1976), 수산협력관련협정(1978), 항공협정(1998), 투자보장협정(1998), 무역협정(2006)
- 우리나라의 2013년 대 이란 교역규모는 이란에 대한 경제제재 강화, 특히 2012년 7월 EU의 이란산 원유 수출에 대한 유조선 운송보험 제공 금지조치의 영향으로 전년(148.01억 달러) 대비 32.2% 감소한 100.4억 달러에 그쳤음.
- 2013년 우리나라의 대 이란 수출은 44.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28.4% 감소하였으며, 수입은 55.59억 달러로 전년 대비 34.9% 감소하였음.
- 주요 수출품목은 수송기계, 전기기기, 철강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품은 원유임.

< 표 5 > 이란·이란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2011	2012	2013	주요 품목
수출	6,068,276	6,256,525	4,480,816	알루미늄 가공품, 섬유제품 등
수입	11,358,379	8,544,429	5,558,572	금광석, 알루미늄괴 등

자료: 한국무역협회.

- 해외직접투자(2013년 9월말 누계, 총투자 기준): 25건, 54,095천 달러
- 국제사회의 대 이란 경제제재 완화로 양국간 경제관계 호전될 전망
- 우리나라는 대 이란 무역규모가 석유와 가전, 건설과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넘는 이란의 주요 교역국이며, 우리나라의 1965~2010년의 대 이란 건설수주액은 약 119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음.
- 그러나 미국의 공개적 이란 추가 제재 동참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이란산 원유의 수입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2011년 12월 16일 이란 핵개발 등과 관련된 이란의 단체 99개와 개인 6명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양국 관계가 소원해졌음.

- 우리나라의 원유 수입액에서 이란산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6%에서 2013년 5.2%로 현저히 낮아졌음.
- 조건부 핵협상 타결로 인해 그동안 금지되었던 우리나라의 대 이란 자동차 부품 수출 및 이란으로부터의 석유화학제품 수입이 향후 6개월간 가능해짐에 따라 무역 증가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V. 종합 의견

- 이란은 2012년 말 기준 세계 4위의 원유 확인매장량 및 세계 1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이지만 석유 일변도의 경제구조와 열악한 인프라가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핵개발 문제로 인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지속은 외국인직접투자 및 기술이전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등 경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음.
- 2012년 7월 EU의 이란에 대한 운송보험 제공 금지로 원유 수출이 타격을 입어 2012~13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으나, 2013년 11월 핵협상 조건부 타결로 2014년 1월 20일부터 6개월간의 시한부 경제제재 완화가 단행됨에 따라 원유의 생산 및 수출 증가 등이 기대되어 2014년에 최소 1.5%의 플러스(+) 경제성장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됨.
- 정치적으로는 2013년 8월 Rouhani 대통령의 집권 후 서방 국가들과의 타협을 추구, 핵개발 관련 협상이 조건부 타결되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일부 완화됨에 따라 Rouhani 대통령에게도 힘을 실어주어 정국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이란 내부의 뿌리 깊은 종교적 보수파의 반대로 인한 정치적 갈등 요소는 잠재되어 있음.
- 2013년 말 기준 총외채잔액 규모는 GDP의 3.7%로 추정되며, D.S.R도 3.0% 수준으로 추정되어 단기간의 외채상환능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또한 핵협상 합의 이행에 따른 6개월간의 제재 완화를 통해 42억 달러 규모의 해외자산에 대한 동결이 풀리면서 외채상환능력의 향상이 기대됨.

- OECD는 2014년 1월 CRE 회의에서 이란의 신용등급을 최저 수준인 7등급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으나, 이는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에 기인한 것임. 특히 금융 부문에의 제재로 인해 이란 OECD 회원국 ECA들로부터의 대출금을 (상환 여력이 충분하고 적극적인 상환 의사를 표명하고 있음에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임.

선임조사역 오경일(☎02-3779-5720)

E-mail : oki1122@koreaexim.go.kr